

EDF의 大停電 복구에 대한 평가

폭풍우로 사상최대의 정전 발생
필사적인 복구작업 높이 평가
부담중기에도 적극 경영유지

작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전국을 미증유(未曾有)의 폭풍우가 내습, 다수의 송전선로 철탑이 무너져, 프랑스전력공사(EDF) 사상 최대사고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345만호(수용가의 약 10%)가 정전되었다.

송배전선로에서는 400kV 38개소, 220kV 81개소, 90.63kV 406개소, 20kV 3,400개소, 380V 25만개소에서 단선사고가 일어났고, 또 변전설비에서는 초고압·고압 2개소, 중압·저압 184개소에서 손괴(損壞)가 발생하였다. 또 철탑·전주는 초고압 250기, 고압 900기, 중압·저압 25,000기가 무너지거나 파손되어 사용불능이 되었다.

또한 발전설비 중에는 남서부 보르드 가까이에 위치한 Le Brayais 원자력발전소에서 4기의 90만kW 유닛 중 정기검사중인 3호기를 제외한 3기가 하천의 홍수로 운전이 정지되었다.

폭풍우의 통과가 해변의 만조시와 겹치는데다가 강풍으로 높은 파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하천의 물이 불어나 일부 설비가 침수된 것이 원인이 되었으며 또 수력발전소에서는 Grand-Maison 발전소가 위험에 대비 운전을 일시 정지하였다.

복구작업에는 EDF의 F. Roussely 회장이 진두지휘에 나섰으며 회사직원은 물론 외국의 전기사업자, 국내관련기업, 나아가서는 군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모두 약 5만4천명이 총동원체제로 임하였다. 또 손괴된 설비 및 작업기기를 조달하기 위하여 메이커에게 재고 기자재의 제공은 물론 증산을 요청하고 동시에 군으로부터의 공출분도 포함하여 약 3000기의 임시발전기(합계출력 40만kW)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복구작업은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를 막는 등 사고현장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 많아 어려움이 극심하였다. EDF는 당초, 설달그믐날까지는 전면복구하여 모든 수용가가 전등을 밝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으나 전면복구에 이른 것은 1월도 13일이나 지나서였다.

그러나 이 EDF의 필사적인 복구 노력에는 국민들로부터 찬사의 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번 노력은 석유회사 토털휘너사가 12월 12일에 발생한 석유탱커의 좌초·침몰사고로 인한 중유 유출에 대하여 당초, 법적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프랑스 서해안에의 표착(漂着) 방지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매스컴의 비난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이 정전복구작업 모습을 보도했으며, 당초부터 공익사업으로서의 사명을 전면에 내걸고 Roussely 회장 지휘하에 총동원체제로 임한 EDF에는 찬사가 보내졌다.

이러한 EDF에 대한 평가는 1월 18일부터 재개된 의회에서 전력자유화법안의 최종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한다. 현재 심의에서는 최소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정부·하원안에 대하여 상원은 보다 더한 자유화조치의 도입을 요구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EDF의 활동으로, 전기사업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었다라면 이번처럼 강력한 총동원체제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었을지에 의문이 집중되어,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정부·하원의 주장이 통과되기 쉬운 쪽으로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사고는 EDF에 플러스로 작용한 면이 많으나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같다. 잠정적인 비용 40~50억프랑을 포함하여 총 복구비용은 약 170억프랑(약 3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송전선의 지중화 추진, 송전철탑의 강도 강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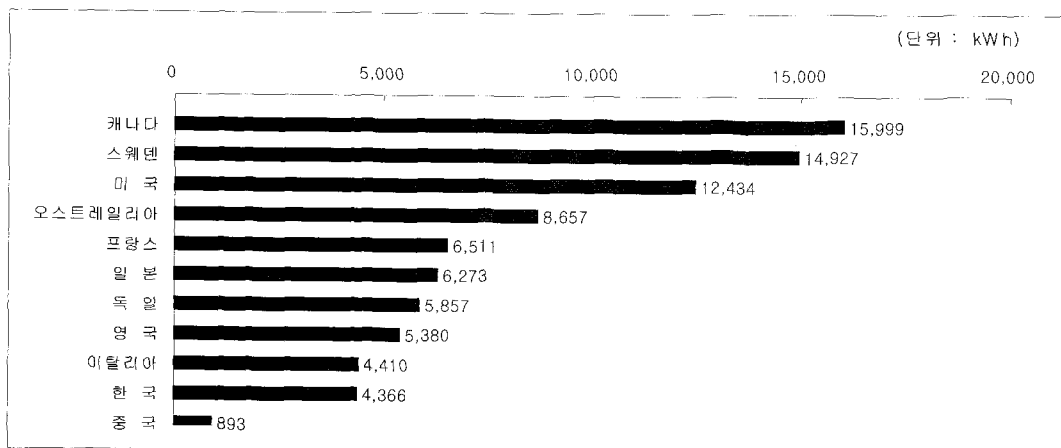
그러나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를 총괄한 Roussey 회장은 앞으로도 EDF는 경쟁이 격화하는 유럽전력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도모한다는 동사의 방침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격적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있다.

Roussey 회장은 「비용 증가는 채무변제계획의 재검토로 대처가능하며, EDF는 기존의 방침대로 멀티 에너지 기업화, 멀티 서비스화, 국제화에 전력투구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스사업에의 진출로, 이것 없이는 EDF의 내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EDF는 종래부터 배급부문에서 합승하고 있는 가스공사(GDF)와의 제휴, 나아가서는 주식 취득(GDF는 일부개방을 예정) 등으로 가스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EDF는 이 규제화·다각화에 의하여 2003~2005년에는 총매상고의 반은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부문에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여부는 정전복구에 승리한 루스리 「장군」이 EDF 「군단」을 「자유화의 전쟁」을 위해 여하히 동기를 부여하고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자료 : 일본전기신문)

〈주요국가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1997년)〉



[자료] 海外電氣事業統計, JEPIC, 1999